

아시아-미국항 정기항로 한국선사 점유율 13%

한진해운 7.5%로 3위, 현대상선 5.6%로 6위



아시아발 미국항 컨테이너정기항로에서 취항중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시장점유율이 합해서 13%를 넘어서는 등 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.

미국 통관 통계데이터서비스(JOC-PIERS)에 따르면, 지난 2005년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항로에서 한진해운의 시장점유율은 7.5%로 3위를 기록했으며, 현대상선은 5.6%로 6위를 기록했다.

아시아-북미항로에 취항중인 주요선사별 시장점유율을 보면, △세계 1위의 정기선사인 머스크시랜드가 11.1%로 1위를 차지했으며, 이어 APL 7.7% △한진해운 7.5% △에버그린 6.8% △COSCON 6.1% △현대상선 5.6% △중국해운 5.6% △NYK 5.4% △OOCL 5.3%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.

그리고 △일본의 K-Line은 4.8%로 10위에 그쳤으며 △대만의 양밍라인 4.4% △일본의 MOL

3.8% △MSC 3.8% △CMA-CGM 3.6% △P&O 네들로이드 3.3% 등이다.

특히 선사별 시장점유율 변동추이를 보면, 머스크시랜드는 지난 2002년 11.6%에서 2005년에는 11.1%로 0.5% 포인트 하락했으며, 에버그린은 9.3%에서 6.8%로 2.5% 포인트 하락했다. 이와함께 APL을 비롯하여 한진해운, OOCL, K-Line 등도 2002년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0.5-1.0% 포인트 가량 하락했다.

그러나 중국해운은 2002년 3.9%에서 2005년에는 5.6%로 1.6% 포인트 상승했으며, 현대상선, MSC, CMA-CGM의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[아시아-미국항로 선사별 시장점유율 추이] (단위 : %)

순위	선사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
1	머스크시랜드	11.6	11.5	10.5	11.1
2	APL	8.5	8.4	8.4	7.7
3	한진해운	8.0	8.7	7.8	7.5
4	에버그린	9.3	8.7	7.3	6.8
5	COSCON	6.3	5.1	5.9	6.1
6	현대상선	5.5	5.6	5.7	5.6
7	중국해운	3.9	3.8	4.8	5.6
8	NYK	5.5	5.6	5.5	5.4
9	OOCL	5.6	5.3	5.3	5.3
10	K-Line	5.0	5.0	4.6	4.8
11	양밍라인	4.3	4.1	4.5	4.4
12	MOL	3.6	3.8	3.9	3.8
13	MSC	1.9	2.6	3.3	3.8
14	CMA-CGM	2.1	2.7	3.2	3.6
15	P&O네들로이드	3.3	3.5	3.4	3.3

* 주 : 아시아지역은 한국, 일본, 중국 등 18개국임.